

## 원삼국시대 경주 인동리 분묘유적의 성격

서 준 교\*

- I. 머리말
- II. 연구사 검토
- III. 인동리 분묘유적의 성격과 특징
- IV. 원삼국시대 음즙벌국 분묘의 분포와 특징
- V. 맺음말

### 국문초록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400번지 유적은 원삼국시대 음즙벌국의 분묘유적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 결과 피장자의 계급에 따라 무덤의 크기와 철기의 부장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인동리지역에서 조사된 분묘유적을 중심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된 음즙벌국 영역에 속하는 안강읍과 포항시 흥해읍 옥성리, 성곡리지역에서 조사된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분묘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음즙벌국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음즙벌국의 國邑 후보지는 실직곡국과의 분쟁 기사로 볼 때, 포항 흥해지역보다 강동면 인동리지역으로 추정되며, 인동리 400번지 유적에서 조사된 분묘의 시기가 기원후 2세기~3세기 전반인 점으로 볼 때, 사로국의

\* 천년문화재연구원 실장 / qhfktor777@hanmail.net

병합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추정된다. 특히 음즙벌국이 사로국에 병합된 이후 울산 중산리유적처럼 분묘의 규모와 특징이 동일하게 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 모습은 사로국이 주변 소국들을 병합한 이후 일정하게 관리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사로국 북쪽에 위치한 인동리 유적과 남쪽에 위치한 울산 중산리유적이 묘제와 출토유물에서 같은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점은 사로국의 초기 지배모습을 확인시켜준다.

◆ 주제어 \_\_\_\_\_

音汁伐國, 斯盧國, 인동리, 흥해, 國邑

## I. 머리말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지역은 경주시 서쪽을 흐르는 형산강 하류지역으로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양동마을 남동쪽에 위치한다. 대미산(해발 130.4m) 남쪽에 형성된 계곡부를 중심으로 위치한 동, 서 양쪽의 구릉 일대를 중심으로 청동기~조선시대 유적이 밀집된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신라의 초기 역사를 알려주는 원삼국시대의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이 위치한다. 인동리유적의 입지조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기계천과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형산강이 합류한 후 남쪽에서 북쪽으로 곡류하면서 천혜의 방어조건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원삼국시대 소국의 거점이 위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인동리유적을 돌아서 흐르는 형산강은 북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포항 영일만을 통해 동해로 연결된다. 그리고 인동리유적 동쪽에 위치한 형산(해발 257.1m)은 포항 영일만과 형산강 하류를 조망하는 지점으로 산 정상부에 보루성으로 추정되는 북형산성<sup>1)</sup>이 위치한다. 그러므로 인동리가 위치한 이 지역은 신라왕도인 경주에서 동해안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거점이자 신라의 도성 외곽 방어에 중요한 지점임을 알려준다.<sup>2)</sup>

인동리 일대에서는 여러 시기의 유적이 다 수 조사되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유적은 청동기~통일신라시대이다. 인동리유적 서쪽에 위치한 안강지역은 고대 音汁伐國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안강지역에서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생활유적이나 분묘유적이 조사된 사례는 많지 않으며, 오히려 인동리유적과 인접한 안계리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일괄유물<sup>3)</sup>과 인동리 528번지 유적에서 조사된 원삼국시대 1호 목관묘<sup>4)</sup>의

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3년 9월조.

2) 박방룡, 「신라왕도의 수비 -경주지역 산성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2, 25~38쪽.

강중훈, 「신라 왕경의 방어체제-경주 지역 성곽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신라문화계학술회의논문집』 27,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6, 1~21쪽.

3) 국은 이양선 수집 문화재로 銅鉞, 銅鐏[물미], 笠形銅器 등이 출토되었다.

존재는 인동리지역이 당시 중심지임을 알려준다. 또한 최근 인동리 400번지 유적<sup>5)</sup>에서 조사된 원삼국시대의 목관묘, 목곽묘는 당시 안강지역에 소재한 음즙벌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점에서 주목되며, 경주-안강(인동리)-포항지역을 잇는 당시 문화권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경주 인동리 400번지 유적과 주변 일대 유적에 대한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원삼국시대 문화를 살펴보고, 안강지역으로 비정된 음즙벌국의 위치를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유적을 근거로 인동리 일대로 재비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음즙벌국의 중심지로 추정된 인동리지역의 분묘들과 경주 및 포항·울산지역에서 조사된 동시기 사로국 분묘들과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 II. 연구사 검토

경주 인동리 일대에 소재한 유적에 대해서는 개별 유구와 유물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유적 전체를 조망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다만 안강지역에 위치했던 음즙벌국과 관련된 연구가 일부 확인되고 있다. 먼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음즙벌국은 기원후 102년(신라 파사이사금 23년)에 사로국이 정벌한 것으로 나온다.

---

이건무, 「전 월성 안계리출토 일괄유물」, 『국은 이양선 수집문화재』, 국립경주박물관, 1987.

국립중앙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 『한국의 청동기문화』, 범우사, 1992, 64쪽 No.88.  
국립청주박물관, 「22. 경주 안계리 유적」, 『한국의 청동기 자료 집성Ⅲ-대구광역시/경상북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2019, 150~151쪽.

- 4) 중앙문화재연구원·현대모비스(주), 『경주 인동리유적』, 2004.
- 5) 천년문화재연구원, 「경주 인동리(400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1.  
오현지, 「경주 인동리 400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제1회 경주지역 문화유산 조사·연구성과 발표회』, 국립경주박물관·문화재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2, 7~21쪽.

“가을 8월에 음즙벌국과 실직곡국이 이 영토를 놓고 다투다가 왕에게 와서 결정해 줄 것을 청하였다. 왕이 어렵게 여겨 이르기를, “金官國의 首露王이 나이가 많아 지식이 많다.”라고 하며 불러서 물어보았다. 수로왕이 의견을 내어 다툼이 된 땅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하였다. 이에 왕이 六部에 명하여 수로왕을 만나 잔치를 베풀게 하였다. 다섯 부는 모두 伊滄이 잔치의 주관자가 되었으나, 오직 漢祗部만이 지위가 낮은 자를 주관자로 삼았다. 수로가 분노하여 자신의 奴僕인 耽下里에게 명하여 한기부의 주관자 保齊를 죽이게 하고는 돌아가 버렸다. 노복 탐하리는 음즙벌국의 왕 陁鄒干의 집에 도망가서 의지하였다. 왕이 사람을 시켜 그 노복을 붙잡게 하였는데, 타추가 보내주지 않았다. 왕이 분노하여 군사를 일으켜 음즙벌국을 정벌하니, 그 왕이 자신의 무리와 함께 스스로 항복하였다. 悉直과 押督 두 나라 왕도 와서 항복하였다.”<sup>6)</sup>

이 기사에 대해서 서영일은 음즙벌국이 안강지역과 포항지역의 동해안 일대를 기반으로 한 세력을 유지했다고 추정<sup>7)</sup>되며, 현재 삼척 일대로 비정된 실직곡국과 영토 분쟁이 일어난 점은 당시 동해안지역에 대한 해상교역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이후 사로국이 음즙벌국과 실직곡국을 병합하여 동해안 연안해로를 장악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서 김창겸은 실직국의 무역중계지인 실직곡국을 상정하고 이를 상실함에 따라서 사로국에 항복하고 편입된 것으로 보았다.<sup>8)</sup> 이는 사로국의 음즙벌국 정벌 목적이 현 포항 영일만 일대로의 진출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형산강변을 따라서 신라의 고유 묘제인 적석목곽묘가 주 묘제로 채용된 고분군이 안강읍 사방리<sup>9)</sup>와 안계리<sup>10)</sup>, 포항 대잠동<sup>11)</sup>에서 확인되

6)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파사이사금 23년조, “秋八月, 音汁伐國與悉直谷國爭疆, 詣王請決. 王難之謂, “金官國首露王, 年老多智識.” 召問之. 首露立議, 以所爭之地, 屬音汁伐國. 於是, 王命六部, 會饗首露王. 五部皆以伊滄爲主, 唯漢祗部以位卑者主之. 首露怒, 命奴耽下里, 殺漢祗部主保齊而歸. 奴逃依音汁伐主陁鄒干家. 王使人索其奴, 陁鄒不送. 王怒, 以兵伐音汁伐國, 其主與衆自降. 悉直·押督二國王來降.”

7) 서영일, 「사로국의 실직국 병합과 동해 해상권의 장악」, 『신라문화』 2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원, 2003, 325~341쪽.

8) 김창겸, 「신라 실직국 복속과 지방통치의 추이」, 『신라사학보』 32, 신라사학회, 2014, 223~261쪽.

9)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사방리 고분군-경주 사방리 996-1번지 유적-』,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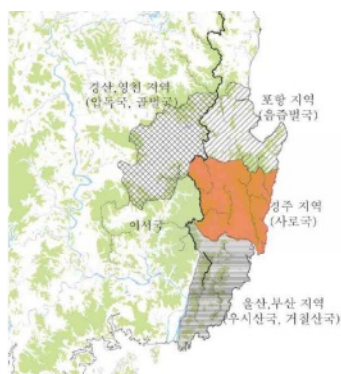
10) 문화재연구소, 『안계리고분군』, 1981.

며, 목곽묘와 석곽묘를 중심으로 한 고분군이 포항 용흥동<sup>12)</sup>, 장성동<sup>13)</sup>, 학잠동<sup>14)</sup> 일대에서 확인되는 모습은 신라가 음즙벌국을 병합한 이후 동해안지역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파사이사금 23년 당시 음즙벌국의 중심영역은 아직까지 분명하게 들어나지 않으며, 음즙벌국 내 취락구성과 분포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음즙벌국의 위치와 관련해 『삼국사기』 권 제34 잡지 제3 「지리」 신라조에는 <義昌郡>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義昌郡은 본래 退火郡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興海郡이다. 領縣은 여섯이다. 안강현은 본디 비화현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까지 그대로 따른다. … 音汁火縣<sup>15)</sup>은 파사왕 때 音汁伐國을 취하여 현을 설치한 곳인데 지금 안강현에 합쳐 속하게 하였다.<sup>16)</sup>”

상기 내용으로 볼 때 신라 경덕왕 당시 안강현(비화현)과 음즙화현(음즙벌국)은 서로 행정단위가 각각 구분된 모습을 보여주며, 안강현에 속하게 한 점



<그림 1> 사로국과 주변 지역국 위치도(윤은식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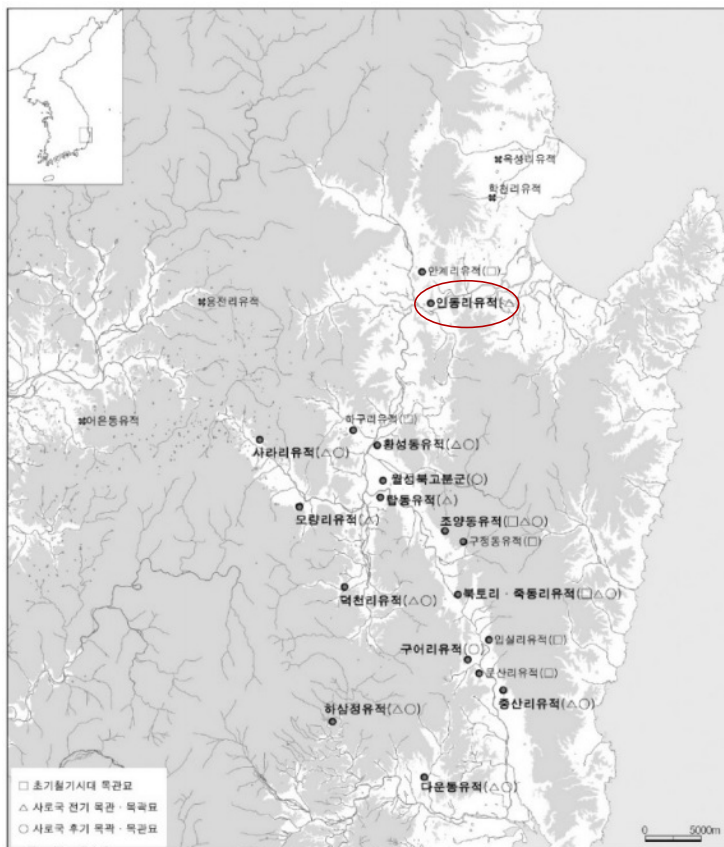
- 11) 서라벌문화재연구원, 「포항 대잠동 상생공원 조성사업부지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2022.
- 12) 국립경주박물관, 『포항 용흥동 신라묘』, 2007.
- 13)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포항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포항 장성동 고분군 I·II』, 2016.
- 14) 세종문화재연구원, 「포항 학잠동(산44-1번지 일원) 학잠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부지내 유적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2022.
- 15) 『삼국사기』 지리지의 내용에 근거하여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일대로 비정하고 있다(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210쪽).
- 16)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 신라 의창군조, “義昌郡, 牟退火郡, 景德王改名. 今興海郡. 領縣六. 安康縣, 牟比火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 音汁火縣, 婆娑王時, 取音汁伐國置縣, 今合屬安康縣. 驚.”

으로 볼 때, 현 안강읍 일대와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형우는 조선시대 후기 지도인 『대동여지도』에는 음즙벌국에 고지였던 음즙화현이 경주, 안강 사이의 달성산 부근에 표시되어있고, 이러한 음즙벌국에 대한 기존 견해를 보면 경주군 강서면<sup>17)</sup>, 경주 음집화 폐현<sup>18)</sup>, 경주 음집화현<sup>19)</sup>, 경주 안강현<sup>20)</sup>, 영해<sup>21)</sup>, 경주시 현곡면<sup>22)</sup>, 안강의 남쪽<sup>23)</sup>, 현재 포항시 중심부일대와 그 북쪽 흥해<sup>24)</sup> 등으로 비정하고 있다.<sup>25)</sup> 그리고 실직국과 계통을 같이하는 집단이 포항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들과 음즙벌국 사이에 일어난 영토분쟁을 기회로 사로국이 이 지역을 확보한 것으로 보았다.

정연식은 삼국시대 당시 음운을 분석하면서 “안강 일대에는 紫玉山, 赤火谷, 土朴里, 音汁伐(音汁火), 檢丹里, 巨音, 金谷 등 빨강, 자주와 관련된 지명이 꽤 많다. 그것이 지질과 관련된 것인지, 식생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 사건이나 설화와 관련된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音汁伐은 그 남쪽의 檢丹里 일대의 평지를 가리키는 말이었을 것이다.”로 보았다.<sup>26)</sup> 이러한 결과는 결국 조선시대 후기 지도에 표기된 내용을 근거로 음즙벌국의 위치를 안강읍 검단리 일대로 보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안강읍 검단리 일대를 음즙벌국의 영역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 
- 17)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276쪽.
  - 18) 정인보, 『조선사연구(상)』, 서울신문사, 298쪽.
  - 19) 권상노, 『한국지명연혁고』, 동국문화사, 1961, 229쪽.
  - 20) 신태현, 「삼국사기 지리지의 연구」, 『신홍대학교 논문집』 1, 신홍대학교, 1958, 34쪽.
  - 21) 酒井改藏, 「三國史記の地名考」, 『朝鮮學報』 54, 朝鮮學會, 1970, 38쪽.
  - 22) 井上秀雄,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428쪽.
  - 23) 천관우, 「삼국지 한전의 재검토」, 『진단학보』 41, 진단학회, 1976.
  - 24) 이희준, 「4~5세기 신라의 고고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36~137쪽.
  - 25) 이형우, 「진 · 변한 제국의 위치와 존재상태」, 『진 · 변한사연구』, 경상북도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2, 92~94쪽.
  - 26) 정연식, 「경주 북부의 音汁伐과 土朴리에 남은 알타이어의 흔적」, 『대동문화연구』 104,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18, 229~253쪽.



〈그림 2〉 경주지역 원삼국시대 목관묘 유적 중 인동리 유적 위치도  
(최병현 2018)

지역에서 원삼국시대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이 확인되어야 한다.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와 사방리 일대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 성과를 살펴보면 그 존재는 미미하지만 안강읍 검단리 산38-3번지 유적<sup>27)</sup>과 안강읍

27) 세종문화재연구원, 『경주 검단리 산38-3·4번지 일원 공장조성부지 내 경주 검단리 산38-3번지 유적』, 2017.



사방리 131번지 유적<sup>28)</sup>에서는 초기철기시대의 점토대토기와 원삼국시대의 주머니호가 출토되었다. 경주시내 일원에서도 원형 또는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의 유적이 확인된 사례<sup>29)</sup>가 많지 않지만, 경주 시내를 흐르는 남천 주변과 형산강변에서 확인된 이 시기의 유적의 존재는 그 의미가 크다.

검단리 일대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성과를 살펴보면, 검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sup>30)</sup>에서 삼국시대 생활유적과 고분군, 측구식 목판묘가 조사되었고, 사방리 996-1번지 유적<sup>31)</sup>에서 기원후 4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목곽묘 1기와 기원후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적석목곽묘가 조사되었을뿐, 원삼국시대 유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읍읍벌국의 영역은 다른 지역으로 비정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동시기 경주 시내와 외곽지역 일대에 위치한 목관묘 유적과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안강지역 일대에서 확인된 목관묘 유적을 살펴보면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400번지 유적<sup>32)</sup>에서 조사된 원삼국시대 분묘와 동시기 유적으로는 형산강 상류쪽에는 현곡면 하구리유적<sup>33)</sup>과 소현리유적<sup>34)</sup>

28) 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131번지 일원 공장신축부지내 유적』, 2014.

29) 남천 변에 위치한 경주 월성 남편농지유적 외에도 북문로 개설부지 내 유적 16-6호 수혈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가 확인되었고, 16-10호 수혈에서 두형토기가 출토된 점으로 볼 때, 경주 시내지역에도 초기철기시대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경주시, 『경주 북문로 왕경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본문), 2005, 262쪽 도면163 No.563, 263쪽 도면164 No.571.

30) 세종문화재연구원, 세종문화재연구원, 『경주 검단리(산131번지 일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내 유적 문화재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0.

31)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앞의 보고서(2010).

32) 천년문화재연구원, 앞의 약보고서(2021) ; 오현지, 앞의 논문(2022).

33)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의 문화유적VII-경주현곡면 하구리 축사신축부지내 유적-』, 2010.

성림문화재연구원, 『경주 금강-하구간 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 구간내 경주 하구리 초기철기시대 옹관묘 유적』,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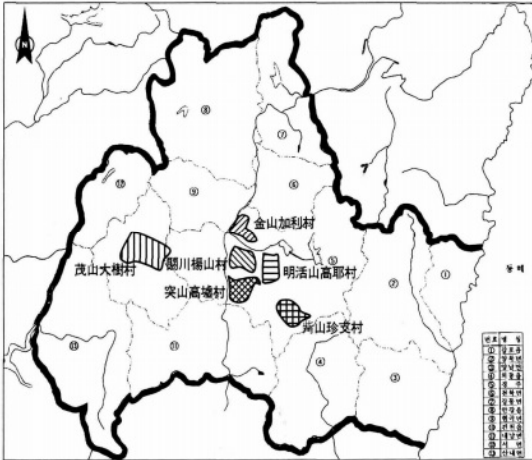
34)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한울문화재연구원, 『경주 소현리유적 I』, 2015.

그리고 황성동유적<sup>35)</sup>이 있고 그 남쪽으로는 내남면 덕천리유적<sup>36)</sup>이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서면 사라리유적<sup>37)</sup>과 건천읍 화천리유적<sup>38)</sup>이 있고 경주 남천 남쪽의 탑동유적<sup>39)</sup>과 북천 상류인 천군동유적<sup>40)</sup> 그리고 남산 남동쪽에 위치한 구정동유적<sup>41)</sup>, 조양동유적<sup>42)</sup> 그리고 외동을 죽동리

- 
- 35) 경북대학교박물관, 『경주 황성동 유적Ⅲ-‘나’·‘라’지구』, 2000.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황성동고분군』, 2002.  
 국립경주박물관, 『경주 황성동 고분군Ⅱ-513·545번지-』, 2002.  
 경주대학교박물관, 『경주 황성동 고분군Ⅲ』, 2003.  
 한국문화재보호재단·경주시, 『경주 황성동 유적Ⅰ-강변로 개설기간 발굴조사 보고서-』, 2003.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주 황성동 공동주택건설부지내 경주 황성동 575번지 고분군』, 2010.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황성동 590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립부지내(A~C구역) 경주 황성동 590번지 유적Ⅰ-원삼국시대 목곽묘·옹관묘-』, 2014.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황성동 590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립부지내(A~C구역) 경주 황성동 590번지 유적Ⅱ-원·삼국시대 목곽묘·옹관묘·557번지 분묘』, 2015.
- 36)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주 덕천리유적Ⅱ-목곽묘-』, 2012.
- 37)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주사라리유적Ⅱ-목곽묘, 주거지-』, 2001.
- 38)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주 양성자가속기 개발사업부지내(B구역) 경주 화천리 산251-1유적Ⅲ-원삼국~조선시대 분묘-』, 2012.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성림문화재연구원, 「Ⅰ-가구역」, 『경주 화천리 유적 -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통합보고서Ⅰ권』, 2021.
- 39) 한국문화재재단, 「4. 경주 탑동 21-3·4번지 유적」, 『2010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Ⅳ-경북 2-』, 2011.  
 한국문화재재단, 「경주 탑동 20-1번지 유적 경주 탑동 20-2·5번지 유적」,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Ⅷ-경북 6-』, 2017.
- 40) 동북아문화재연구원, 『경주 천군동 보문유원지 유적(4구역) -경주도시계획 보문유원지(천군지구) 시설사업부지(4구역) 내 유적-』, 2022.  
 김경수, 「경주 천군동 원삼국시대 유적」, 『제1회 경주지역 문화유산 조사·연구성과 발표회』, 국립경주박물관·문화재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2022, 23~40쪽.
- 41) 樅本杜人, 『朝鮮の考古學』, 同朋社, 1980, 417쪽 No.217.  
 김원용, 「경주 구정리 출토 금석병용기유물에 대하여」, 『역사학보』 1, 역사학회, 1952, 3~14쪽.  
 김재원, 「부여·경주·연기출토 동계유물」, 『진단학보』 25·26·27, 진단학회, 1964, 285~298쪽.
- 42) 국립경주박물관, 『경주 조양동 유적Ⅱ』, 2001·2003.

유적43), 북토리유적44), 입실리유적45) 등이다.

이 중 읍증벌국의 영역 내에서 조사된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생활유적은 안강읍 검단리 산38-3번지 유적, 안강읍 사방리 131번지 유적이 있으며, 분묘유적은 형산강 서쪽에 위치한 현곡면 하구리유적과 소현리유적 그리고 강동면 인동리유적이 확인된다. 한편 유구의 성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출토품으로는 전 안계리유적 출토유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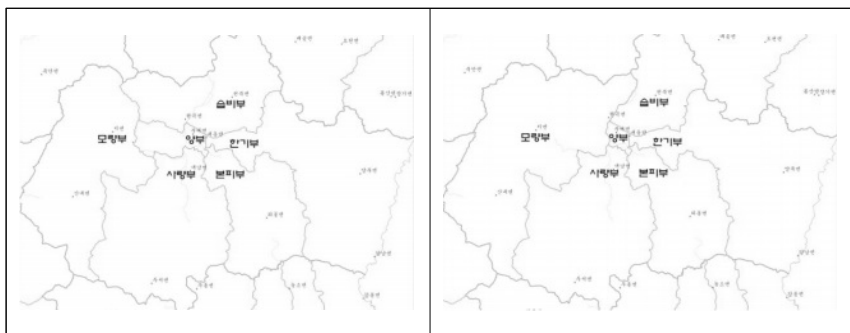
<그림 3> 사로6촌의 위치 비정안  
(박홍국·정상수·김지훈 2003)

경주 시내지역을 중심으로 비정된 사로국의 6촌의 위치와 관련하여 박홍국·정상수·김지훈은 앞서 비정된 사로 6촌의 위치를 검토한 후, 입지환경과 기원전후시기의 유적 분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각 촌의 이름을 추정46)하고, 가장 북쪽에 위치한 금산 가리 촌의 영역을 헌덕왕릉

- 43) 한병삼, 「월성 죽동리출토 청동기 일괄유물」, 『삼불김원용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I - 고고학편-』, 일지사, 1987, 141~168쪽.  
한국문화재단, 「94. 경주 죽동리 639번지 유적」, 『2018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VIII』, 2020.
- 44)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북토리 55-1번지 일원 공장 신축부지 내 경주 북토리 고분군』, 2011.  
계림문화재단연구원, 『경주 북토리 39-1번지 유적-공장신축부지-』, 2014.
- 45) 藤田亮策・梅原末治・小泉顯夫, 「慶州郡外東面入室里の遺蹟と發見の遺物」,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第二冊 -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蹟-, 朝鮮總督府, 1922, 30~78쪽.
- 46) 박홍국·정상수·김지훈, 「사로 6촌의 위치에 대한 시론」, 『신라문화』 2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3, 129~131쪽.

북서편에서 황성동 일대로 보고 있다. 다만 현곡면 금장리와 다경리 그리고 소현리 일대가 배제된 모습인 점은 향후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비정 안의 경우 현 안강읍과 강동면 인동리 일대가 배제된 점은 음즙벌국의 영역이 분리된 모습을 보여준다.

박성현은 신라왕경 6부의 위치와 범위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문헌자료 검토를 통해서 고려시대 6부 소속 촌과 위치를 비정하였다.<sup>47)</sup> 그 결과 2가지 복원 안을 제시하였다. 이 복원 안에서도 현곡면 지역과 안강 이북지역과 강동면 인동리 일대는 6촌의 후보지에서 제외된 모습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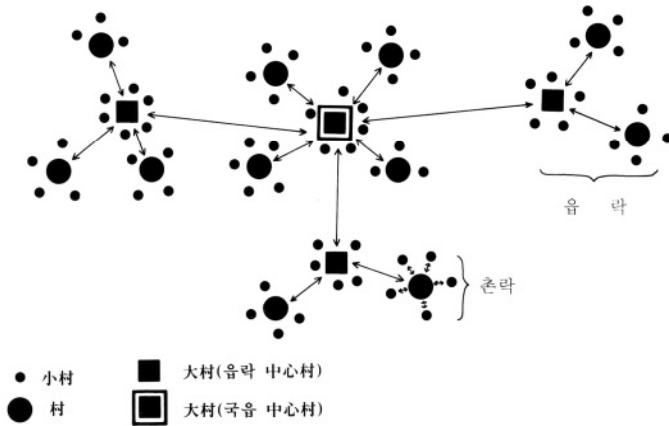


<그림 4> 사로6촌의 위치 복원 안(박성현 2019)

이희준은 삼한시대 소국 형성과정을 취락 분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기본 취락 몇 개가 큰 취락을 구성하는 모습을 상정한 후, 원삼국시대 분묘의 분포와 대비시켜서 검토하였다.<sup>48)</sup> 그 결과 각 분묘군은 읍락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읍락 안의 주요 촌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청동기시대의 촌락들이 초기철기시대에 들어서서 읍락으로 통합된

47) 박성현, 「신라 왕경 6부의 경계에 대한 연구」, 『대구사학』 134, 대구사학회, 2019, 1~38쪽.

48) 이희준, 「삼한 소국 형성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틀 -취락분포 정형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43, 한국고고학회, 2000, 113~138쪽.



<그림 5> 삼한시대 읍락의 구성(이희준 2000)

데는 역시 대체로 외래문화라고 보는 점토대토기 문화의 유입과 일정한 관련이 있으며, 이 시기 분묘군의 분포는 그 촌을 중심으로 하는 취락군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읍증벌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안강지역에 있기보다는 아닐 가능성을 지적하고, 현재 포항시 중심 부일대와 흥해지역으로 비정하였다.<sup>49)</sup> 그리고 읍증벌국 자체는 그보다 북쪽 혹은 남쪽의 동해안 일대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읍증벌국 안에서 중심 읍락이 있었던 지구만을 읍증화현으로 보고, 그 범위를 남북으로 좀더 길게 자리잡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읍증벌국과 실직곡국의 분쟁과 관련해서는 사로국이 동해안 교역로에서 김해 구야국을 거의 배제하고 독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동해안 교역로 통제를 울산과 동래지역 복속과 연결시켰다.<sup>50)</sup>

김희철은 경주지역 목관묘를 검토<sup>51)</sup>하고 유적별로 분묘의 묘방 면적

49) 이희준, 앞의 논문(1998), 136~137쪽.

50) 이희준, 앞의 논문(1998), 143쪽.

에 따라 2m 미만의 묘광을 가진 목관묘를 A유형, 2m 이상 3m 미만을 B유형, 3m 이상의 목관묘를 C유형으로 나눈 뒤 목관내부에 부장된 구슬과 옥의 부장양상을 대입하여 계층화하였다. 그 결과 구슬과 옥의 부장량이 다수를 차지하는 A유형을 기층민의 묘로 그리고 청동위세품과 다수의 철기와 토기가 부장된 B유형을 상위계층묘로 보았다. 그리고 B 유형에서 목관계목곽묘로 전환되는 C유형으로 변화한다고 보았다.

이주현은 경주지역에서 발굴된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대까지의 목관묘와 목곽묘에 대한 구조분석과 그 변화양상을 고찰하였다.<sup>52)</sup> 그 결과 한반도 서남부지역의 적석목관묘가 기원전 2세기 후반 무렵 영남지방으로 파급되면서 경주지역에서도 철기가 부장된 群集墓가 조성되기 시작하며 이후 기원전 1세기 후반에는 漢郡縣의 설치에 따라 대동강 유역의 유이민이 辰韓으로 남하, 정착하면서 前漢鏡과 瓦質土器가 부장된 중소형의 單純木棺墓가 경주지역에 등장한다고 보았다. 기원후 2세기 축조된 사라리 130호는 낙랑지역의 목곽묘에 보이는 구조로 기존의 목관묘와 구조상에서 차이가 보이는 이러한 木棺系木槨墓의 출현은 변·진한의 鐵을 매개로 한 낙랑과 이 지역과의 활발한 교섭관계를 보여준다고 보았다. 또한 기원후 2세기 후반대 이후 정치체의 규모가 크게 성장한 경주지역의 분묘시설에는 부장유물의 안정적인 공간을 위한 槨이라는 개념이 정착하게 되었고, 소형묘와 입지상에 있어 차별성을 가진 대형의 장방형목곽묘가 기원후 3세기 전엽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지배집단 내 계층분화의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대형묘가 소재하는 지역이 소국의 중심지로써 자리를 잡게 된 것으로 보았다.

김용성은 이 시기 목관묘 문화를 중심으로 설명<sup>53)</sup>하면서, 이형동기가 출토되는 積石木棺墓가 섞인 1차 파급 목관묘 문화의 경우 고조선 준왕

51) 김희철, 「삼한시대 경주지역 목관묘 연구」, 경주대학교 문학석사 학위논문, 2007, 45쪽.

52) 이주현, 「경주지역 목관·목곽묘의 전개와 사로국」, 『문화재』 42권 3호, 국립문화재연구원, 2009, 106~130쪽.

53) 김용성, 「영남지방 목관묘와 사로국」, 『한국고대사연구』 82, 한국고대사학회, 2016, 7~44쪽.

의 南來, 秦·漢문화가 섞인 2차 파급 목관묘 문화의 경우 고조선 멸망 즈음의 유이민과 관련되었다고 보고 위만의 성립 이후 중국 진·한을 통해 문화가 그 이전 재지 문화와 융합되어 있었고, 그것이 남하하여 남부지방 목관묘 문화를 형성시킨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사로국의 경역을 남서로 서천의 발원산지, 남동으로 관문성 주변, 서북으로 대천의 발원산지, 북으로 형산강 하류로 보고 동해안 일대를 사로국의 고지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형산강 수계를 중심으로 크게 7곳으로 구분하고, 사로국시기 최초 분묘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형산강 하류지역에 위치한 인동리지역을 사로국의 영역으로 본 점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음즙벌국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은 모습이기에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표 1〉 사로국시기 분묘군의 최초 분묘(김용성 2016)

시기	B.C.100		0	A.D.100
유적	하구리 문산리	화천리, 조양동 일대 죽동리 일대, 덕천리	인동리 황성동	사라리 탐동 인왕동·황남동(목곽묘)

최병현은 사로국 초기단계에 수장들이 묻힌 중심고분군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고 모두 선주민 계통의 목관묘가 확대된 것으로 보았다.<sup>54)</sup> 기원후 2세기 중엽경부터 경주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계통의 목관묘가 조영되며, 이후 후기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되어 황성동유적과 중산리유적으로 대표되는 두 계통의 목관묘가 축조되며, 이는 주민들의 동질화과정과 계층화를 보여준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이 사로국시기의 목관묘의 분포와 6촌의 위치를 비정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삼한시대의 소국이라는 것은 기원전 2세기 말 이후에 성립되었으며, 하나의 국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개개의 읍락

54) 최병현, 「원삼국시기 경주지역의 목관묘·목곽묘 전개와 사로국」, 『중앙고고연구』 27, 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29~104쪽.

이 하나의 촌을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분묘군은 하나의 읍락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읍락 안의 주요 촌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묘군 내 유력자의 무덤은 촌의 지배자묘일 가능성이 높다.<sup>55)</sup> 사로국의 영역은 황성동 북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서쪽으로는 현곡면 금장리, 다정리, 소현리 일대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안강읍 검단리와 사방리 일대는 『삼국사기』의 기록처럼 음즙벌국의 영역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크며, 강동면 인동리 역시 음즙벌국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 Ⅲ. 인동리 분묘유적의 성격과 특징

형산강 하류에 위치한 인동리에는 청동기~삼국시대 유적이 다 수 조사되었다. 곡부의 평야지대에는 생활유적이 위치하고, 구릉과 말단부에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분묘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입지를 살펴보면 인동리 670-1번지에서 확인된 습지로 볼 때, 계곡 중앙을 따라서 내려오는 곡부 지형과 주변 일대에 생활유적이 조성되었으며, 동·서 양쪽 구릉을 따라서 분묘가 위치한 모습으로 추정된다.

#### 1. 경주 인동리 528번지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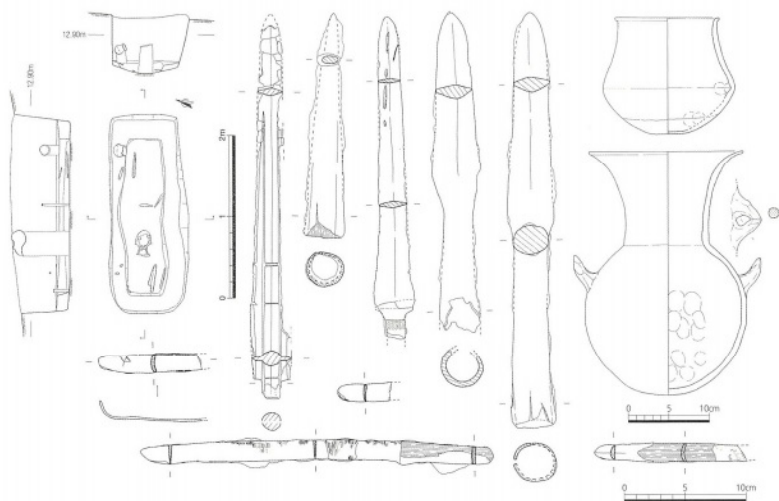
인동리유적의 남동쪽 구릉지인 인동리 528번지에서 원삼국시대 목관묘 1기와 옹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sup>56)</sup> 목관묘는 단독으로 입지하며 장축방향은 구릉을 따라서 북동동-남서서(N-71°-E) 방향이다. 墓壙은 길이 245cm, 너비 95cm, 최대깊이 68cm, 평면비율은 2.57:1이고, 목관은 길이 193cm, 너비 55cm, 평면비율은 3.51:1로 U자형의 통나무목관을 사용하였다. 목관 상부에 주머니호 1점을 놓고, 봉토 안에는 조합식우각형

55) 이회준, 앞의 논문(2000) 126쪽.

56) 중앙문화재연구원·현대모비스(주), 앞의 보고서(2004).



파수부장경호 1점을 부장하였고, 목관 안에는 세형동검 1점, 철검 1점, 철도 1점, 철모 2점, 물미 1점, 철부 2점, 철검 1점, 鐵鉞 3점이 부장되었다. 피장자의 머리 방향은 서쪽이다. 출토유물로 볼 때, 분묘의 조성시기는 경주 황성동유적(한국문화재재단)<sup>57)</sup> 4호 목관묘와 같은 기원후 1세기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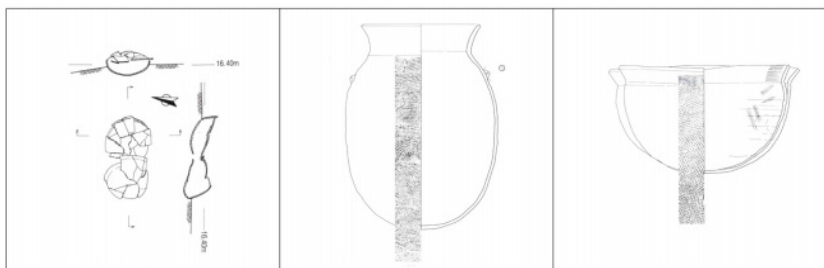


경주 인동리 1호 목관묘 유구(1/60)와 출토유물(청동·철기 1/4, 토기 1/6)

<그림 6> 경주 인동리 528번지 유적 1호 목곽묘 및 출토유물(국립청주박물관 2019)

옹관묘는 조사지역 말단부에 위치하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한 동-서(N-80°-E) 방향이며, 묘방은 길이 72cm, 너비 39cm, 최대 깊이 21cm이다. 합구식옹관묘로 주옹은 파수부장동옹, 막음옹은 동이로 모두 격자문을 타날했다. 옹관묘의 조성시기는 기원후 3세기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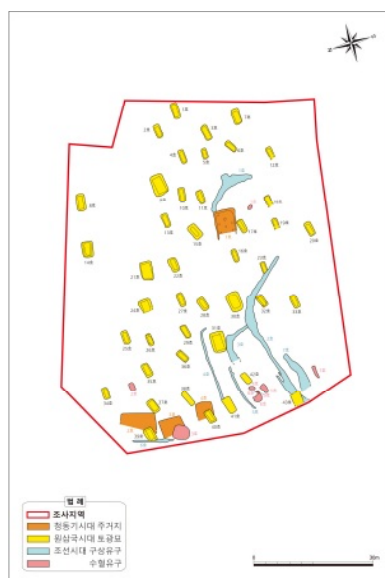
5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주 황성동 유적 I-강변로 개설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2003.



〈그림 7〉 경주 인동리 528번지 유적 1호 옹관묘 및 출토유물

## 2. 경주 인동리 400번지 유적

인동리유적의 동쪽 구릉 서사면인 인동리 400번지 일원으로 원삼국시대 목관묘·목곽묘 42기가 조사되었다.<sup>58)</sup> 묘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세장방형으로 묘광 안에서 U자형 함몰이 확인되므로 일정한 규모의 봉분을 갖춘 모습으로 추정된다. 목관의 형태는 ‘ㄷ’자 모양의 판재를 조립한 목관과 장방형 목관이 확인되며, 목곽 중에는 사방에 통나무 기둥을 세운 모습도 있다. 묘광과 목관 사이에 일부 돌을 넣은 모습도 보이지만 많은 돌을 넣지는 않았다. 목관 안에는 주로 철초철검, 철모, 철부, 철검, 따비, 철촉 등을 부장하



〈그림 8〉 경주 인동리 400번지 유적 유구배치도(천년문화재연구원 2021)

58) 천년문화재연구원, 앞의 약보고서(2021) ; 오현지, 앞의 논문(2022).

였고, 충전토 안과 목관 위에는 소옹과 격자문이 타날된 단경호, 장동옹, 조합식우각형과수부장경호, 저부가 돼지코 모양인 양이부첨저장동옹 등의 토기를 부장하였다. 대형묘의 경우 많은 양의 철모가 부장되었는데, 31호묘의 경우에는 고사리 장식이 달린 재갈이 부장된 모습은 특징적이다. 조사된 분묘 내 부장된 토기가 소량인 점으로 보아, 분묘 안에 부장된 유물이 철기 중심인지 아니면 석평으로 인한 유구의 유실 때문인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 출토된 수가 소량인 점은 주목된다. 유적에서 확인된 대형 목곽묘의 목곽 사방에서 기둥구멍이 확인된 사례는 울산 중산리유적 VII-지구<sup>59)</sup>에서 확인된 것과 유사한 모습으로 비교가 된다. 경주 인동리 400번지 유적에서 조사된 분묘를 살펴보면 크게 무덤의 묘광과 목관, 목곽의 크기와 형태 그리고 부장된 유물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분묘 내 피장자의 신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경주 인동리 400번지 유적 분묘 현황표

번호	방향	묘광 크기(cm)			비율	목곽 크기(cm)		비율	목관 크기(cm)		비율	유물(점수)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길이	너비		
1	N-82°-W	300	130	42	2.30:1	245	86	2.85:1				·
2	N-87°-W	253	118	27	2.14:1	192	76	2.53:1				철검1
3	N-80°-E	293	127	46	2.31:1	256	90	2.84:1				철모2, 호저부1
4	N-88°-W	256	105	42	2.44:1	213	90	2.37:1				양이부첨저옹1
5	N-84°-W	200	107	23	1.87:1	165	75	2.20:1				·
6	N-63°-E	243	103	35	2.36:1	208	89	2.34:1				·
7	N-89°-W	287	145	31	1.98:1	226	101	2.24:1				철검1, 철모3, 철부4
8	N-73°-W	288	132	44	2.18:1	223	74	3.01:1				·
9	N-88°-W	400	260	54	1.54:1	316	160	1.98:1				철검1, 철모2, 철부3, 철검2, 따비1, 소옹1, 호저부1

번호	방향	묘광 크기(cm)			비율	목곽 크기(cm)		비율	목관 크기(cm)		비율	유물(점수)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길이	너비		
11	N-89°-E	250	122	46	2.05:1	227	69	3.29:1				철모1, 철부1
12	N-88°-E	(179)	110	18	·	(158)	64	·				철부1, 도자1
13	N-84°-W	279	122	51	2.29:1	222	63	3.52:1				철모1, 철부1, 호 저부1
14	N-80°-W	315	190	44	1.66:1	282	134	2.10:1	258	85	3.04:1	철검1, 철모4, 철부1, 철촉1, 따비1, 타날문호 저부1
15	N-72°-E	311	176	53	1.77:1	201	61	3.30:1				철모2, 철부1
16	N-85°-W	260	110	30	2.36:1	207	66	3.14:1				·
17	N-83°-E	272	130	44	2.09:1	209	66	3.17:1				·
18	N-84°-E	(183)	113	11	·	(159)	88	·				철촉3
19	N-89°-E	(147)	112	22	·	(113)	61	·				·
20	N-84°-E	280	127	34	2.20:1	232	70	3.31:1				철검1, 철모3, 철부2, 철촉1
21	N-81°-W	402	200	47	2.01:1	282	181	1.56:1	217	100	2.17:1	철검1, 철모7, 철부2, 철촉6, 철검1, 철정1, 따비1, 소호1, 타날문 단경호1
22	N-87°-W	287	168	47	1.71:1	282	128	2.20:1				철검1, 철모3, 철부2
23	N-86°-W	(234)	96	35	·	202	63	3.21:1				·
24	N-87°-W	(214)	96	35	·	229	140	1.64:1				철검2, 철촉4, 도자1
25	N-84°-W	273	142	25	1.92:1	204	73	2.79:1				철검1, 철모3, 철부3
26	N-90°-E	240	117	24	2.05:1	143	69	2.07:1				·
27	N-86°-W	284	125	37	2.27:1	246	80	3.08:1				·

59) 창원대학교박물관, 『울산 중산리유적 I -현대자동차 근로자주택 부지내 유적-』, 2006.

원삼국시대 경주 인동리 분묘유적의 성격(서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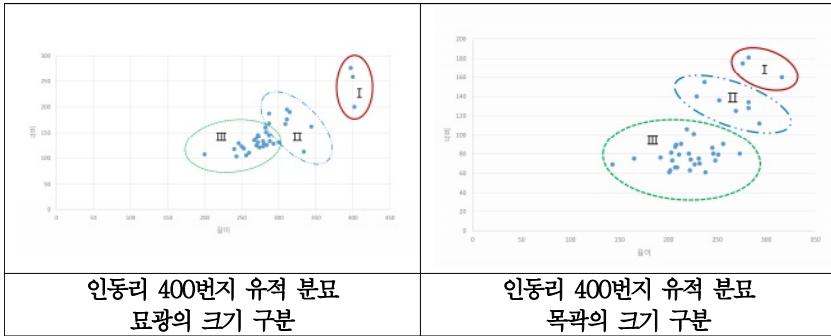
번호	방향	묘광 크기(cm)			비율	목곽 크기(cm)		비율	목관 크기(cm)		비율	유물(점수)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길이	너비		
28	N-78°-E	272	145	47	1.88:1	221	80	2.76:1				철모2, 철부1, 철촉3
29	N-88°-E	274	120	40	2.28:1	251	79	3.18:1				호 저부1
30	N-84°-E	400	260	61	1.54:1	237	155	1.53:1				철검4, 철모13, 철준1, 철부3, 철촉1, 따비1, 발형토기1 타날문 단경호2, 옥구슬3
31	N-85°-E	397	277	35	1.43:1	276	175	1.58:1	210	92	2.28:1	철검4, 철모14, 철촉3, 철부2, 철검1, 따비1, 재갈1, 옥구슬10, 호 저부1
32	N-79°-E	267	134	39	1.99:1	209	66	3.17:1				.
33	N-89°-E	279	132	53	2.11:1	238	61	3.90:1				철모1, 철부3
34	N-88°-E	246	128	71	1.92:1	203	81	2.51:1				.
35	N-87°-E	283	151	30	1.87:1	211	79	2.67:1				철검2, 철모4, 철준1, 철부1, 철촉4, 철검1, 장란형단경호1
36	N-70°-E	270	139	42	1.94:1	207	87	2.38:1				철부2, 용1
37	N-81°-E	309	167	49	1.85:1	269	125	2.15:1				철모2, 철부1, 철검1, 양이부침저용1, 장란형단경호1,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1
38	N-76°-E	334	112	66	2.98:1	293	112	2.62:1				철검2, 철모6, 철부2, 따비1, 타날문단경호1

번호	방향	묘광 크기(cm)			비율	목곽 크기(cm)		비율	목관 크기(cm)		비율	유물(점수)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길이	너비		
39	N-85°-E	287	187	37	1.53:1	219	106	2.07:1				철모4, 철부1, 철검1, 타날호 저부1
40	N-84°-E	282	160	53	1.76:1	231	75	3.08:1				철모1, 철부1, 타날문단경호1
41	N-78°-E	344	162	73	2.12:1	273	80	3.41:1				철모3, 철부2, 따비1, 호1
42	N-83°-E	311	195	51	1.59:1	252	136	1.85:1				철모1, 대각저부1

인동리 400번지 유적에서 조사된 분묘들의 묘광과 목곽 크기비율을 살펴보면 크게 3개의 군집으로 구분된다. 특히 I 군으로 분류된 대형묘의 경우에는 그 규모와 부장유물 등 많은 철모가 출토된 점으로 볼 때, 당시 지역 내 촌락의 수장묘로 볼 수 있다.

<그림 9>와 같이 묘광과 목곽의 크기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된 점은 이미 사회계층구분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며, 철기 부장에서도 역시 동일한 모습이 확인된다. 경주 인동리 400번지 유적 내 개별 분묘는 묘광의 크기와 부장유물 중 철모의 숫자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대형묘에 부장된 철모는 7점과 13점, 14점으로 중형묘의 3~4점과 소형묘의 1~2점에 비해서 그 차이가 크며, 대형묘와 중형묘에는 따비의 부장이 확인된 점도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철모의 부장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은 이 시기 조성된 경주 황성동유적과 울산 중산리유적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확인된다. 특히 대형묘인 31호묘에서 확인된 마구인 고사리문 장식이 있는 재갈의 존재는 주변 분묘들과 구분되는 유력한 개인 즉 지역 내 지배자의 존재를 알려주며, 경주 조양동유적 63호 목곽묘 출토품<sup>60)</sup>과 비교가 된다. 인동리 400번지 유적 내 분묘들의 조성시기는 기원후 2세기~3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60) 국립경주박물관, 『경주 조양동 유적Ⅱ-본문-』, 300쪽 도면 191-②·③, 2003



<그림 9> 경주 인동리 400번지 유적 분묘의 묘광·목곽 크기 비교

<표 3> 경주 인동리 400번지 유적 분묘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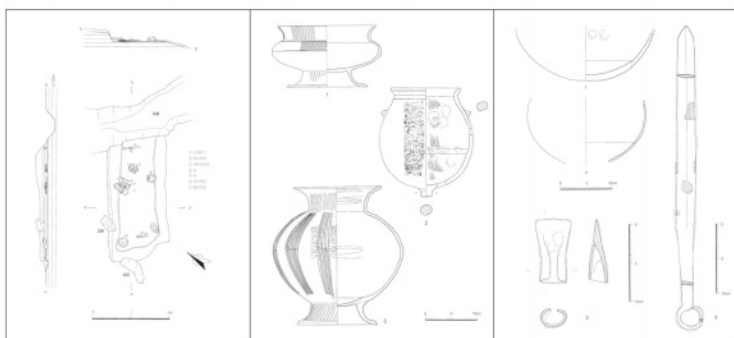
구분	호 수	특징
I 군 (대형묘)	21, 30, 31(3기)	철모 다량 부장, 채갈
II 군 (중형묘)	1, 9, 14, 15, 20, 22, 23, 24, 25, 35, 37, 38, 39, 41, 42(15기)	철모 3~4점 부장
III 군 (소형묘)	2, 3, 4, 5, 6, 7, 8, 10, 11, 12, 13, 16, 17, 18, 19, 26, 27, 28, 29, 32, 33, 34, 36, 40(24기)	철모 1~2점 부장

### 3. 경주 인동리 산31번지 유적

인동리유적의 남서쪽 구릉지인 인동리 산31번지에서 원삼국시대 목곽묘 1기와 옹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sup>61)</sup> 목곽묘와 옹관묘는 북서-남동향으로 서로 인접한 모습이며 장축방향은 구릉을 따라서 북동-남서

6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부록 경주강동면인동리고분 발굴조사보고서」, 『포석정모형 전서관부지 시굴조사보고서』, 2001.

(N-59°-E) 방향이다. 묘광은 잔존길이 320cm, 너비 130~155cm, 최대 깊이 37cm로 평면비율은 (2.06):1이고, 목곽은 잔존길이 280cm, 너비 85~100cm로 평면비율은 (2.80):1이다. 동혈주부곽식목곽묘로 추정되며 추정 주곽 안에는 환두철검과 철부를 두었고, 남서쪽에는 노형토기, 대 부장경호, 호를 놓았다. 추정 부곽 안에는 삼뉴부옹, 호가 확인된다. 분 묘의 조성시기는 출토유물로 볼 때 울산 중산리유적 VIII-90호 출토품<sup>62)</sup>과 비교되며, 환두철검의 존재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경주 구정동고분 3곽 출토품<sup>63)</sup>과 비교되므로 기원후 3세기 2/4분기로 추정된다.



〈그림 10〉 경주 인동리 산31번지 유적 목곽묘 및 출토유물

#### 4. 전 안계리 출토유물

국은 이양선 수집품으로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 하며, 동모 3점, 동돈(물미) 1점, 입형동기 5점이다.<sup>64)</sup> 입형동기는 수레 부속인 車馬具 중 하나로 수레의 난간을 장식하는 기물이다. 평양 상리

62) 창원대학교박물관, 『울산 중산리유적Ⅶ-울산시 중산리 55-2번지 외 18필지 일원의 가스관 매설지역내 유적, 울산시 중산리 632번지 일원의 농협상가 신축부지내 유적-(Ⅷ지구)』, 2014, 406쪽 도면 225-1.

63) 국립경주박물관, 『경주 구정동고분』, 2006, p.82 도면 28-①.

64) 이진무, 앞의 논문(1987) 국립경주박물관, 앞의 책(2019)



유적, 황주 흑교리유적, 대구 평리동유적, 국립박물관 소장품(본관13242) 등이 알려져 있다. 출토된 동모 중 鋸部에 2개의 반원형 고리를 양쪽에 붙인 環耳附銅鐃는 전 김해 양동리 출토품의 사례가 있다. 이 환이부동모는 일본 야요이시대 중기말~후기초에 나타나는 형식이므로 유적의 시기는 기원후 1세기로 추정된다.<sup>65)</sup>



<그림 11> 전 안계리 출토유물

전 안계리 출토유물은 경주 북부지역에 초기철기시대 수장묘가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사례로 인접한 영천 용전리유적보다 시기적으로는 늦지만 비교가 되며, 포항 흥해 옥성리유적과 성곡리유적에서 다수의 세형동검과 성운경, 방제경 등이 출토된 점으로 볼 때, 대구-영천-경주-포항을 연결하는 초기철기시대 문화권의 존재와 당시 낙랑군과 교류하던 지역 수장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점에서 중요하다.

#### IV. 원삼국시대 음즙벌국 분묘의 분포와 특징

원삼국시대 음즙벌국은 사로국과 함께 공존한 소국의 하나이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것처럼 실직곡국과의 분쟁지역을 형산강 하류지역인 포항 영일만을 중심으로 한 연안 교통로와 해상교역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면, 지금 안강과 포항지역을 포함하여 음즙벌국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중심지를 안강읍 검단리 일대로

65)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광주박물관, 앞의 책, 1992, 64쪽 No.88.

본다면 형산강변을 따라서 입지한 취락과 분묘유적을 읍증별국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읍증별국과 관련된 유적은 먼저 안강읍과 강동면 인동리 일대를 포함한 형산강변과 포항지역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며, 현재까지 조사된 유적으로 본다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성곡리 일원을 포함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 취락유적으로는 인동리유적과 포항 남구 호동유적<sup>66)</sup>, 남구 연일읍 중명리 웅관묘유적<sup>67)</sup>이 대표적이며, 분묘유적은 인동리유적과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고분군<sup>68)</sup>, 성곡리유적<sup>69)</sup>, 옥성리 산4-2번지 유적<sup>70)</sup>, 옥성리 산5-3·산5-15번지 유적<sup>71)</sup>, 옥성리 산5-5번지 유적<sup>72)</sup>, 옥성리 산12-1번지 유적<sup>73)</sup>, 옥성리 산12-3번지 유적(옥성리고분군 가·나지구)<sup>74)</sup>, 옥성리 176-2번지 유적<sup>75)</sup>, 초곡리 취락유적 C구역<sup>76)</sup>, 용전리 2구역<sup>77)</sup>과 남구 연일읍 중명리 웅관묘유적 등이며, 초기

6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포항시 호동 쓰레기매립장 확장부지 내 포항 호동유적 I (I 지구)』, 2005.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포항시 호동 쓰레기매립장 확장부지 내 포항 호동유적Ⅲ~Ⅶ(Ⅱ지구-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2008a.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포항시 호동 쓰레기매립장 확장부지 내 포항 호동유적Ⅷ(Ⅱ지구-원삼국~삼국시대 수혈유구 외)』, 2008b.

67) 성림문화재연구원, 『포항 중명리 웅관묘 유적』, 2009.

68) 세종문화재연구원, 『포항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내 포항 남성리고분군』, 2019.

69) 한빛문화재연구원, 『포항 성곡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포항 성곡리 유적 I~Ⅳ』, 2012.

70)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경상북도 포항시, 『포항 국도7호선 확장공사구간내 포항옥성리고분군발굴조사보고서』,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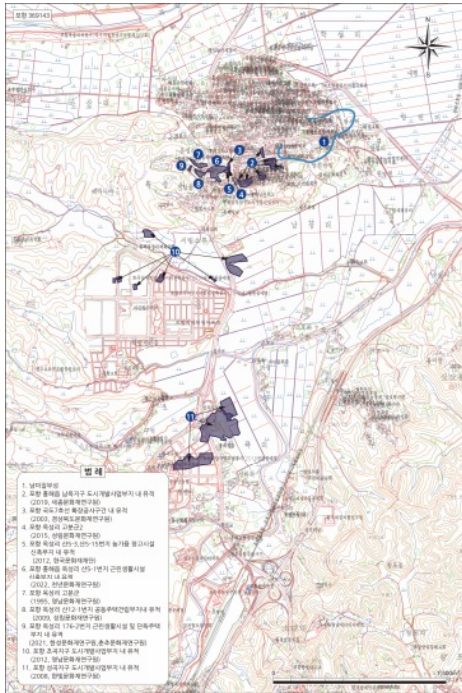
71) 한국문화재단, 「포항 옥성리 산5-3·산5-15번지 유적」,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Ⅺ-경북 3-』, 2015.

72) 성림문화재연구원·포항국토관리사무소, 『포항 국도 7호선 마산지구 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구간 내 포항 옥성리 고분군Ⅱ』, 2015.

73) 성림문화재연구원, 『포항 옥성리 산12-1번지 공동주택건립부지 내 포항 옥성리 고분군』, 2012.

74) 국립경주박물관·포항시, 『옥성리 고분군 I~Ⅲ-『가』지구 발굴조사보고-』, 2000. 영남문화재연구원·포항시, 『포항옥성리고분군 I·Ⅱ-나지구-』, 1998.

75) 성림문화재연구원·금아건설(주), 『포항 옥성리 176-2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 내 포항 옥성리 176-2번지 발굴(시굴)조사 보고서』, 2019.



〈그림 12〉 포항 옥성리·남성리·초곡리·성곡리유적 및 남미질부성 위치도

철기시대 목관묘와 원삼국시대 목관묘, 목곽묘, 옹관묘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흥해 옥성리유적과 호동유적 사이의 직선거리가 14.8km인 점과 자연경계인 형산강의 존재로 본다면, 호동유적은 오천지역과 문화적으로 연결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포항지역에서 읍읍별국의 영역은 형산강 이북지역, 즉 흥해읍을 중심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동쪽으로는 곡강천을 통해서 동해안 칠포와 연결되고, 남쪽은 대련리를 경유해서 유강리를 통해 형산강과 연결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형산강을 통해서 안강읍 검단리 일대와 강동면 인

동리 지역과 연결된 교통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2〉와 같이 남미질부성<sup>78)</sup>을 거점으로 한 옥성리유적과 남성리유적이 초곡리유적을 포함하여 하나의 세력을 구성하고 있고, 성곡리유적은 별개로 분리된 세력을 형성한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인동리유적의 성격을 추정하는데 있어 개별 취락과 분묘유적의 영역을 살펴보는데

76) 영남문화재연구원,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포항 초곡리 취락유적』, 2014.

7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금오문화재연구원, 『포항 흥해우회 국도건설구간 내 포항 마산리 고분군』, 2020.

78) 경주문화재연구소, 『남미질부성 지표조사보고서』, 1993.

도움을 준다. 따라서 포항 옥성리유적을 중심으로 한 포항지역의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유적의 조성시기와 변화를 살펴보면 인동리유적의 성격을 비교할 수 있다.

이 시기 생활유적은 남성리고분군 III구역에서 삼국시대 주거지 1동<sup>79)</sup>이 조사된 점으로 볼 때, 구릉 사면부와 인접한 남미질부성이 당시 거성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남성리고분군 동쪽에 위치한 남미질부성은 자연구릉을 깎아내고 성벽을 만들었는데 『삼국사기』에 기록으로 볼 때, 축성시기를 기원후 504년(신라 지증마립간 5년) 9월조에 등장하는 彌實城<sup>80)</sup>을 남미질부성으로 보고 있다.<sup>81)</sup> 북쪽 성벽(제7·9구간)에서 확인된 기와들과 채집유물을 근거로 통일신라~고려시대를 중심시기로 보았다. 그러나 지표조사보고서에 수록된 유물 중 기원후 3세기대 제작된 토기편과 인접한 남성리고분군 II구역에서 확인된 원삼국시대 목곽묘와 삼국시대 수혈과 채석장 등으로 볼 때, 토성의 사용시기는 적어도 기원후 3세기 전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미질부성 내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성 바깥쪽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축성 및 사용시기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향후 토성 내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남성리고분군 II구역에서 확인된 원삼국시대 생활유적이 토성 내부에서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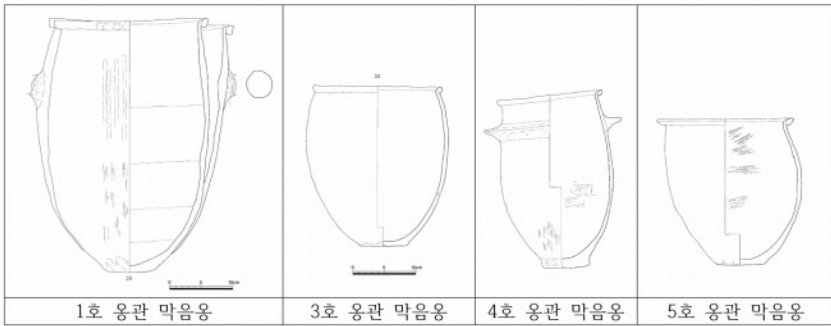
연일읍 중명리 웅관묘 유적은 형산 남동쪽에 위치한 옥녀봉에서 북쪽으로 내려오는 사면 말단부에 위치하며, 초기철기시대의 삼각형점토대토기 옹과 파수부호를 이용한 웅관묘 8기와 두형토기, 주머니호, 옹 등을 매납한 수혈 1기와 원삼국시대의 주거지 2동이 조사되었다. 유적의 조성시기는 웅관묘는 기원전 1세기~기원전후, 매납유구는 기원후 1세기로

79) 세종문화재연구원, 『포항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내 포항 남성리고분군-III·IV 구역-』, 2019, 144쪽 도면 561.

80)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5년조, “가을 9월에 역부를 징발하여 波里城, 彌實城, 珍德城, 骨火城 등 12성을 쌓았다(秋九月, 徵役夫, 築波里·彌實·珍德·骨火等十二城).”

8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1993), 1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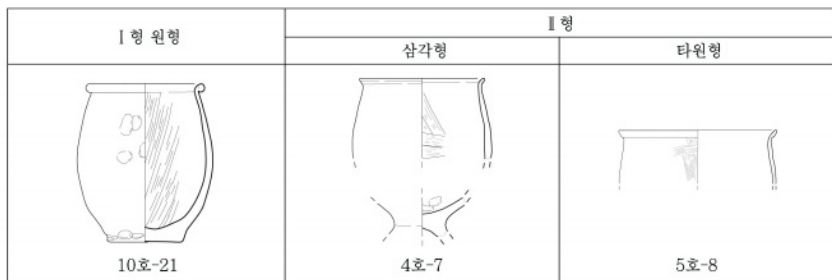
추정된다. 주변에 별개의 동시기 유적이 확인되지 않지만 형산강을 따라서 인동리유적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안강읍 검단리 산38-3번지 유적과 안강읍 사방리 131번지 유적의 생활유적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점으로 볼 때, 동시기 유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3> 포항 연일읍 중명리 옹관묘 출토 삼각형점토대토기

포항 흥해지역에서 조사된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분묘유적을 살펴보면 가장 시기가 앞선 유적은 포항 옥성리유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굴조사가 되었다. 포항 옥성리지역의 목관묘와 이른 시기의 목곽묘의 입지를 살펴보면 먼저 구릉 사면 말단부의 비교적 평탄면에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 모습으로 축조되었다. 이후 3세기에 목곽묘가 축조되면서 ‘가’지구 35호, ‘나’지구 17호·78호·108호, 옥성리 산12-1번지 유적 34호 등과 같은 대형 목곽묘와 세장방형 목곽묘들은 구릉 정상부와 그 사면에 조성되었다. 포항 옥성리 산5-3·산5-15번지 유적은 기원전 2세기 후반에서 기원전 1세기 후반에 속하는 1호 목관묘가 가장 빠른 분묘이다. 이 외에는 무문토기 개(3호 목관묘), 옹(7호 목관묘), 원형점토대토기 옹(10호 목관묘), 두형토기(13호 목관묘), 무문토기 옹(1호 옹관묘), 삼각형점토대토기 옹(6호 옹관묘)과 대부장경호(7호·31호 목곽묘) 등으로 빈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원형 및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부

장된 모습으로 볼 때, 초기철기~원삼국시대 흥해지역의 최초 분묘군으로 판단된다.



〈그림 14〉 포항 옥성리 산5-3·산5-15번지 유적 출토 무문토기 및 점토대토기  
(한국문화재단 2015)

포항 옥성리 산12-1번지 유적은 기원전 1세기 전반~기원후 1세기 대 분묘가 조성되었다. 2호 목관묘에서 세형동검 1점이, 3호 목관묘에서는 세형동검 1점과 철기 칼집 흔적 그리고 원반형 철기뚜껑이 출토되었고, 1호 목관묘에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 옹과 두형토기, 흑칠마연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포항 옥성리 산4-2번지 유적은 기원후 2세기 전반부터 분묘가 조성되었으며, 2호 목관묘에서 철검과 盤部金具가 출토되었다. 상기 유적에서 조사된 목관묘에서 동경이 부장되지 않은 점은 피장자의 신분 차이인지 알 수 없지만, 향후 출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포항 성곡리유적에서는 기원전 1세기 중엽~기원후 1세기 중엽에 해당되는 초기철기시대의 목관묘와 옹관묘가 확인되었다. 분묘의 배치상태를 보면 중 중앙의 군집은 열상배치를 이루는 A, B군집과 삼각상의 C군집으로 구분되는데, 묘역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조영원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A군집의 4호 목관묘, B군집의 9호 목관묘를 중심으로 철검과 방제경이 부장된 7호, 8호묘가 있고, C군집에서는 13호 옹관묘 주변에 10호, 11호 목관묘가 삼각형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는 각각의 군집에는 걸출한 유물을 가진 매장이 있고 그 매장 주

변에 상대적으로 빈약한 유물을 가진 매장이 배치되었음을 보여준다.<sup>82)</sup> 다 수의 철초동검, 철초철검과 성운경 그리고 대구 평리동 출토 방제경과 동형의 방제경이 출토된 모습은 대구-영천-포항-경주를 이어주는 문화를 알려준다.

<표 4> 포항지역 초기철기시대 분묘유적 출토 청동기, 철기 출토사례

유적명	조성시기	출토유물
옥성리 산4-2번지 유적 2호 목관묘	A.D.2세기 전반	철검, 반부금구
옥성리 산5-3 · 산5-15번지 유적 1호 목관묘	B.C.2세기 후반 ~B.C.1세기 후반	철초동검
옥성리 산12-1번지 유적 1호 목관묘	B.C.1세기	동검
옥성리 산12-1번지 유적 3호 목관묘	A.D.1세기	철초동검, 철기뚜껑, 유리제 경식
초곡리 취락유적 C-3호 목관묘	A.D.1세기 전엽	철검, 검파두식(쌍조형)
성곡리 I 구역 2호 목관묘	A.D.1세기 중엽	원통형청동기, 유리제경식
성곡리 I 구역 4호 목관묘	A.D.1세기 전엽	철초동검, 반부금구, 검파두식, 철기부채, 철기
성곡리 I 구역 7호 목관묘	A.D.1세기 중엽	철초철검, 반부금구, 방제경
성곡리 I 구역 8호 목관묘	A.D.1세기 중엽	철검, 검파두식(심부금구)
성곡리 I 구역 9호 목관묘	A.D.1세기 중엽	철검, 반부금구, 검파두식, 청동촉, 청동팔찌, 동탁, 철기소호
성곡리 I 구역 11호 목관묘		유리제경식, 관옥
성곡리 I 구역 12호 목관묘	A.D.1세기 후엽	철검, 반부금구, 검파두식, 판상철부
성곡리 I 구역 13호 옹관묘	A.D.1세기 중엽	철검, 성운경

82) 김대환, 「3. 원삼국시대 분묘」, 『포항 성곡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포항 성곡리 유적IV』, 한빛문화재연구원, 2012, 19~20쪽.

포항 초곡리 취락유적에서 확인된 목관묘의 조성시기는 기원후 1세기 전엽~1세기 후엽이다. 성곡리유적 I 구역에서 확인된 목관묘와 비슷한 모습으로 묘역이 조성된 모습이 확인되며, C-3호 목관묘에서 출토된 쌍조형 검과두식은 경산 내리리유적, 대구 봉무동유적 출토품과 비슷하다. 이들 분묘 중 청동기, 철초철검, 철기 등이 출토된 분묘를 살펴보면 포항 용전리유적 2구역에서 초기철기시대 목관묘 1기와 원삼국시대의 토광묘 1기가 각각 조사되었다. 초기철기시대 1호 목관묘 출토 삼각형점토대토기는 기원전 2세기 중엽, 원삼국시대 1호 토광묘 출토 주머니호는 기원전 1세기 전엽으로 추정된다.

<표 4>를 보면 흥해 옥성리유적과 성곡리 I 구역 유적이 가장 중심세력으로 존재했고, 초곡리 취락유적 C구역 분묘군은 위치로 볼 때, 옥성리집단에 포함되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흥해지역 내 집단은 2개의 유력집단이 기원전후 시기에 존재했으며, 음즙벌국의 주요 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포항지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분묘의 조성시기

시기	B.C.200	B.C.100	0	A.D.100	A.D.200	A.D.300
유적	옥성리 산4-2번지 유적					
	옥성리 산5-3·15번지 유적					
	옥성리 산12-1번지 유적					
	초곡리 취락유적 C구역					
	용전리유적 2구역					
	남성리고분군					
	성곡리유적 I 구역					
	중명리 용관묘 유적					

포항 흥해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된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분묘의 조성시기는 기원전 2세기 경 원형점토대토기가 부장된 분묘가 출현한 이후,



기원전 2세기 중엽에 삼각형점토대토기의 부장과 옹관묘가 축조되며, 이후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와질토기와 다량의 철기부장이 이루어진 목관묘, 목곽묘가 조성된다. 원형 및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부장된 목관묘가 확인된 옥성리 산4-2번지 유적, 옥성리 산5-3 · 산5-15번지 유적, 용전리유적 2구역을 아우르는 범위를 초기철기~원삼국시대 흥해지역 내 초기 취락의 영역과 분묘 공간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전 안계리 출토유물처럼 다량의 청동기와 중국 한(낙랑)의 수레부속구가 출토된 사례와 달리 성곡리유적 I 구역에서 한경과 방제경이 부장된 모습은 분묘 피장자의 차이를 보여준다. 기원후 2세기후반부터 분묘에 와질토기 단경호, 양이부옹, 양이부장동옹 등이 부장된 모습은 인동리 400번지 유적과 유사하다.

안강읍 검단리 산38-3번지 유적과 안강읍 사방리 131번지 유적에서 출토된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 및 두형토기의 존재는 포항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은 생활유적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동 시기 분묘가 확인되지 않은 점은 한계이다. 하지만 인동리유적에서 기원전 1세기부터 분묘가 조성되었고, 형산강 하류인 증명리 옹관묘유적에서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를 옹관에 사용한 모습이 확인되므로 안강읍과 강동면 인동리에서도 점토대토기가 부장된 분묘가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6> 경주 안강읍 및 강동면 인동리유적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유적의 조성시기

시기		B.C.200	B.C.100	0	A.D.100	A.D.200	A.D.300
유적	안강 검단리 산38-3번지 유적						
	안강 검단리 131번지 유적						
	안강 사방리 131번지 유적						
	전 안계리 출토유물						
	인동리 528번지 유적						
	인동리 400번지 유적						
	인동리 산31번지 유적						

<표 5·6>을 통해 경주 안강읍 및 강동면 인동리유적 그리고 포항지역 내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유적의 조성시기를 살펴본 결과 음즙벌국이 형성된 시기는 기원전 2세기를 전후한 원형점토대토기문화단계로 포항 옥성리 산4-2번지 유적, 옥성리 산5-3·산5-15번지 유적, 용전리유적 2구역과 안강 검단리 산38-3번지 유적과 사방리 131번지 유적을 중심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후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단계에 들어서면서 포항 성곡리, 중명리유적과 사방리 131번지 유적으로 확대된다. 전 안계리 출토유물로 대표되는 초기철기시대의 수장묘는 청동기의 부장에 따라서 한(낙랑)의 수레부속구가 포함된 분묘와 성곡리유적 I 구역처럼 중국 한경과 방제경이 부장된 분묘로 구분되는데, 이는 동시기 수장묘의 권력과 신분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음즙벌국 내 수장인 臣智가 출현했음을 보여주며, 강동면 안계리와 인접한 인동리 일대와 흥해읍 남미질부성이 당시 國邑과 같은 성격으로 기능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전 안계리 출토유물의 경우 경주 조양동유적, 구정동유적, 입실리유적, 전죽동리 출토유물 등과 함께 초기철기시대의 유력개인의 단독묘이다. 공반유물로 볼 때, 평양 상리유적, 황주 흑교리유적, 대구 평리동유적, 대구 비산동유적, 영천 어은동유적, 경주 조양동유적, 포항 성곡리유적과 같이 한의 영향을 받은 서북지방의 문화와 관련성을 보여준 점은 당시 중심취락과 묘역이 두 지역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당시 진한 내 소국인 음즙벌국의 성장배경을 알려준다.

최종규는 무문토기시대 후기에 동검이 부장된 유력개인묘는 단독으로 입지하는 것에 반해 초기철기시대의 유력개인묘는 집단성원의 공동묘지와 동일한 장소에 만들었음을 지적하고 삼국시대에는 이보다 더 성층화가 이루어지면서 입지의 우월성, 매장주체부의 대규모화, 무구의 집중화가 이루어짐을 지적하고 있다.<sup>83)</sup> 인동리 400번지 유적을 비롯하여 포항 흥해지역에서 조사된 분묘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진한 내 소국이 세력범위를 보여주며 이들이 사로국에 의해 통합되면서 국가로 발전해나가는

83) 최종규, 「삼한사회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토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93~10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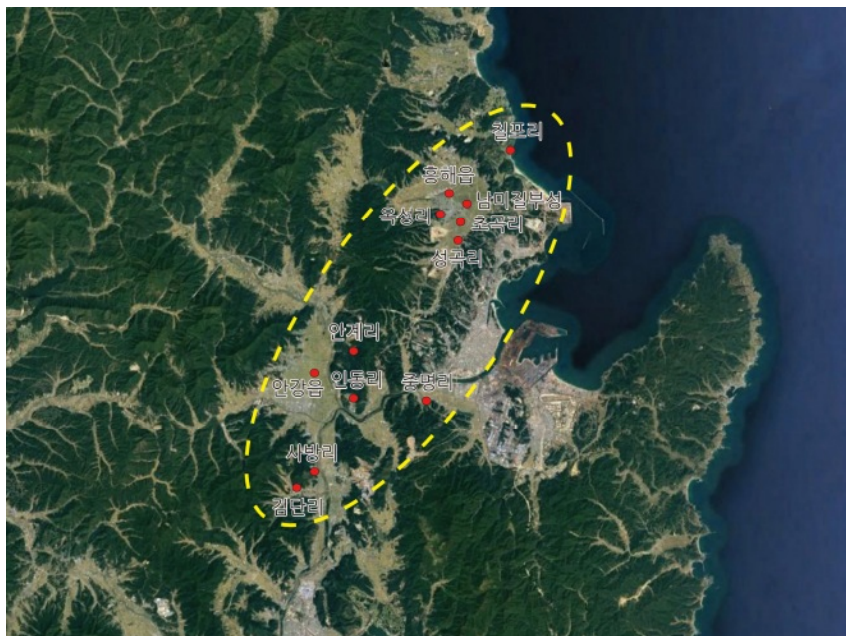
모습을 피라미드상의 성층화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소국 안에서도 마을별로 세력의 우열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포항 흥해읍 옥성리·성곡리·초곡리유적에서 확인된 목관묘와 부장유물의 차이는 이를 보여준다.

이재현은 삼한시대 영남지역 내 주요 청동유물의 지역간 출토상황을 통해서 지역간 교류현황을 설명하고, 지역간 교류가 상주-대구-경산-경주-김해를 연결하는 광역적 범위에서 서로 유사한 형태의 청동의기가 출토되며, 상주-대구-경주-김해가 가장 중심지역인 점과 지역간 교류가 반드시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교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음에 비해 영천-대구, 영천-김해, 대구-경주, 대구-김해, 경산-김해는 교류의 정도가 강하며, 김해는 동해안루트를 통해 경주와의 교류 외에도 낙동강루트를 통해 경산 및 대구지역과 교류를 행하였음을 지적하였다.<sup>84)</sup> 이러한 모습은 결국 음즙벌국과 실직곡국 사이에 일어난 분쟁에 사로국 외에도 김해 금관국의 수로왕이 개입하는 원인이 동해와 남해를 연결하는 연안해안 교역망과 연결된 문제였음을 알려준다.

원삼국시대인 기원후 102년에 벌어진 음즙벌국과 실직국 사이에 일어난 분쟁은 결국 당시 동해안 연안교역망을 누가 지배하는 가라는 문제와 갈등구조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당사자인 음즙벌국과 실직곡국 외에도 이 교역망과 관련된 사로국과 금관국 역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분쟁에 간섭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분쟁이 일어난 동해안 연안교역거점을 흥해읍 남미질부성 주변으로 본다면, 음즙벌국의 국읍은 이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시기 국읍으로 볼 수 있는 성곽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으며 안강읍 검단리 산38-3번지 유적, 안강읍 사방리 131번지 유적 일대에서 생활유적이 확인되지만, 인동리 지역과 같이 대규모로 확인되지 않는 점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남미질부성이 위치한 흥해지역은 음즙벌국과 실직곡국 사이의 분쟁 기사로 볼 때, 동해안에 위치한 교통과 물류거점으로

84) 이재현, 「진·변한사회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2003, 164쪽.

볼 수 있으므로, 음즙벌국과 관련된 국읍 후보지는 안강읍 검단리·사방리지역 또는 강동면 인동리 일대에서 찾아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초기철기시대의 유력 개인묘인 전 안계리 출토유물의 존재로 본다면, 인동리 일대를 당시 국읍의 후보지로 볼 수 있다고 추정된다. 이는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삼국시대의 안계리고분군이 적석목곽묘로 신라 고유의 묘제를 채용한 점으로 볼 때, 하나의 세력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5〉 음즙벌국 공간영역 추정도

결국 음즙벌국은 안강읍 검단리·사방리지역, 강동면 인동리와 포항시 연일읍 중명리지역, 포항시 홍해읍 옥성리(남미칠부성)·성곡리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3개 마을로 구성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발굴조사된 유적의 편차가 크므로 모두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세형동검과 한경, 방제경이 부장된 시기는 음즙벌국이 진한

을 구성한 12개 소국 중 하나로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포항 흥해읍 옥성리·성곡리지역에서 조사된 초기철기시대 목관묘유적과 대비되는 유적이 안강읍 검단리·사방리, 강동면 인동리 일대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조사가 확대된다면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

인동리 400번지 유적에서 확인된 것처럼 분묘의 크기차이가 현격하게 들어나면서 철모 부장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 시기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실직곡국과의 분쟁이후 사로국에 의한 음즙벌국 병합직전과 병합 이후의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동리 400번지 유적 31호묘에서 출토된 고사리문장식 재갈은 동시기 사로국 내 6촌 지배층의 분묘로 볼 수 있는 경주 조양동 유적 63호 목곽묘와 비교되는 점과 인동리 400번지 유적 내 분묘에서 확인된 목곽 내 기둥흔적과 철모 부장양의 차이 등에서 울산 중산리유적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점은 결국 음즙벌국이 사로국에 병합되는 과정과 이후 새롭게 내부로 편제되어가는 모습을 알려준다.

## V. 맺음말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400번지 유적은 원삼국시대의 분묘유적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된 음즙벌국과 실직곡국과의 분쟁을 기점으로 이후 사로국에 의한 병합과 그 이후 나타난 변화상을 보여준다. 음즙벌국의 영역은 안강지역을 중심으로 한다고 보았지만, 최근 발굴자료를 통해서 포항 흥해읍 옥성리와 성곡리 일대까지 포함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음즙벌국의 국읍 후보지로는 안강읍 검단리·사방리 또는 강동면 인동리 일대 그리고 포항시 흥해읍(남미질부성)으로 볼 수 있으며, 실직곡국과의 분쟁 기사로 볼 때, 해상교역의 거점을 국읍 후보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안강읍 또는 강동면 인동리 일대로 추정된다. 인동리 400번지 유적에서 조사된 분묘의 조성시기는 기원후 2세기~3세기 전반으로 음즙벌국의 전성기와 사로국으로 병합된 이후 울산 중산리유적처럼 새롭

게 편재되면서 분묘의 규모와 특징이 동일하게 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모습은 사로국이 주변 소국들을 병합한 이후 일정하게 관리했음을 알려주며, 사로국 북쪽에 위치한 인동리유적과 남쪽에 위치한 울산 중산리유적이 묘제와 출토유물에서 같은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점은 사로국의 초기 지배모습을 확인시켜준다.

※ 이 논문은 2022년 8월 1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9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삼국사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주 삼국사기4 주석편(하)』, 1997.

강종훈, 「신라 왕경의 방어체제-경주 지역 성곽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신라 문화제학술회의논문집』 27,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동국대학교 신라문화 연구소, 2006.

김대환, 「3. 원삼국시대 분묘」, 『포항 성곡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포항 성곡리 유적IV』, 한빛문화재연구원, 2012.

김원용, 「경주 구정리 출토 금석병용기유물에 대하여」, 『역사학보』 1, 역사학회, 1952.

김용성, 「영남지방 목관묘와 사로국」, 『한국고대사연구』 82, 한국고대사학회, 2016.

김재원, 「부여·경주·연기출토 동제유물」, 『진단학보』 25·26·27호, 진단학회, 1964.

김창겸, 「신라 실직국 복속과 지방통치의 추이」, 『신라사학보』 32, 신라사학회, 2014.

김희철, 「삼한시대 경주지역 목관묘 연구」, 경주대학교 문학석사 학위논문, 2007.

박방룡, 「신라왕도의 수비 -경주지역 산성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2.

박성현, 「신라 왕경 6부의 경계에 대한 연구」, 『대구사학』 134, 대구사학회, 2019.

박홍국·정상구·김지훈, 「사로 6촌의 위치에 대한 시론」, 『신라문화』 2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3.

서영일, 「사로국의 실직국 병합과 동해 해상권의 장악」, 『신라문화』 2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3.

오현지, 「경주 인동리 400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제1회 경주지역 문화유산 조사·연구성과 발표회』, 국립경주박물관·문화재청 신라왕 정책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2.

이재현, 「진·변한사회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2003.

- 이주현, 「경주지역 목관·목곽묘의 전개와 사로국」, 『문화재』 42권 3호, 국립문화재연구원, 2009.
- 이형우, 「진·변한 제국의 위치와 존재상태」, 『진·변한사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2.
- 이희준, 「4~5세기 신라의 고고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이희준, 「삼한 소국 형성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틀 - 취락분포 정형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43, 한국고고학회, 2000.
- 정연식, 「경주 북부의 音汁伐과 土朴里에 남은 알타이어의 흔적」, 『대동문화연구』 104,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18.
- 최병현, 「원삼국시기 경주지역의 목관묘·목곽묘 전개와 사로국」, 『중앙고고연구』 27, 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 최종규, 「삼한사회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토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한병삼, 「월성 죽동리출토 청동기 일괄유물」, 『삼불김원용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I -고고학편-』, 일지사, 1987.
- 樅本杜人, 『朝鮮の考古學』, 同朋社, 1980.



Abstract

## Characteristics of Tomb Remains in Indong-ri, Gyeongju, from the Proto-Three States Era

Seo, Jun-kyo

The remains at 400, Indong-ri, Gangdong-myeon, Gyeongju-si, is presumed to be the tomb remains of Eumjeupbeol-guk from the Proto-Three States era. The excavation confirmed differences in the size of the tombs and the iron tools buried according to the deceased's rank.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tombs from the Early Iron Age to the Proto-Three States era investigated in the areas of Angang-eup; Okseong-ri, Heunghae-eup, Pohang-si; and Seonggok-ri, which belong to the Eumjeupbeol-guk area as recorded in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focusing on the tomb remains surveyed in the Indong-ri area, it was possible to infer the existence of Eumjeupbeol-guk although there are regional differences. The candidate site of Gup-eup of Eumjeupbeol-guk is presumed to be the area of Indong-ri, Gangdong-myeon, rather than the Heunghae area in Pohang, judging from the article on the dispute with the Siljigok-guk. Considering that the tomb excavated at the site of 400, Indong-ri dates from the 2 A.D. to early 3 A.D., it is presumed to show the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annexation by Saro-guk. In particular,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the tombs changed similarly after Eumbeoljeup-guk was merged into Saro-guk, like the remains of Jungsan-ri, Ulsan. It indicates that Saro-guk had managed small neighboring countries after annexing them. Therefore, the fact that the

Indong-ri site located to the north of Saro-guk and Jungsan-ri site in Ulsan located in the south show the same process of changes in tomb system and excavated relics confirms how Saro-guk ruled the area in the early period.

**keywords :**

Eumjeupbeol-guk, Saro-guk, Indong-ri, Heunghae, Gugeup